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직면한 개혁주의 신앙의 과제

문석호*

- I. 다원주의 사회와 종교다원주의
 - 1.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의
 - 2. 서양적 논리의 한계와 동양적 통합의 일원론적 사고
- II. "다원화된 사회"안에서의 "종교다원주의"
 - 1. 문화적 다양성인가? 종교적 진리의 다양성인가?
 - 2. 종교다원주의적 사고에서 이해되는 진리관
- III. 다원주의적 사고에 대한 진단
 - 1. 정치, 문화적 '동등성'인가? 종교간의 '대화'인가?
 - 2. 보편이념과 보편진리로서의 '하나님'인가?
 제시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인가?
- IV. 결론: 다원주의 시대속의 성경적 신앙인의 과제
 - 1. 기독교 신앙에 대한 통일성의 요구
 - 2.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말에 대한 경계

* 교목실장, 신학과 교수

I. 다원주의 사회와 종교다원주의

1.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논의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다원주의적 사고¹⁾라는 말은 주로 삶의 구성적 측면에서의 다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종교적 진리에 대한 접근을 필수적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규범적 이해에 있어서의 다양성'(多樣性)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간과 종교적 진리이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오늘날 현대사상에서 논의되는 '다원주의'라는 용어가 단순히 '삶의 양식'에 그 초점을 두는 듯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순한 삶에 대한 '다양한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따라서 '유일성(唯一性)으로서의 진리관'에 대한 비교적 관점에서 '다원적 진리관'(眞理觀)이라는 가치론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고로, 다원주의 논쟁을 단순히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 논의되는 다원주의적 사고는 그 출발에 있어서 종교적인 진리관이나 가치관적 측면만을 강조한다기 보다는,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각 지역간의 문화간의 장벽(cultural barrier)을 없애거나 또는 정치적인 평등성 아래 개개인(또는 집단간)의 인권 내지 종교적 신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도 사실이요, 이는 세계를 하나의 동네(global community)라는 개념에서 상호이해와 교통(交通)을 향한 방향으로 이해되고, 동시에 범세계적인 경제구조나 개방된 사회구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해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원주의는 인류 속에 깃든 모든 종교적 신념들이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대화(對話)를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²⁾

다원주의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해를 요구한다. 그 중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자유로운(자유분방한) 사회나 또는 정치적으로 다인종(多人種)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다문화(多文化)를 수용하고 국가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전통적 문화와 종교를 유지해 나갈 수

1) 다원주의(多元主義)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삶과 이에 따른 가치론적인 측면의 다양성(多樣性) 내지 종교나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관용(寬容) 내지 통합적 의미로 이해된다. 본란에서는 종교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2) 이러한 이해로서 다원주의적 사고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러한 식의 접근은 결국 '종교적 진리'(religious truth)를 다만 사회적, 문화적 차별로서 이해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그 내용에 있어서나 결과에서 볼 때도 지극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하나의 문화나 종교적 신념(진리관)이 다른 문화나 종교적 신념을 지배(支配)하거나 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대사회야 말로 종교다원주의를 향한 길을 활짝 열어놓는 첩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배경에는 기독교 중심의 사회적 배경을 지닌 유럽과 구미의 국가들, 그리고 호주 등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동남 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비롯한 중동으로부터 이민을 대량 받아들이면서, 그들 이민자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각기 다른 종교들을 정치적 차원의 평등성으로 보호해 주거나 인정해 줌으로서 종교적 다양성을 부추기게 된 것이다.³⁾ 그 가장 적나라한 경우가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와 다인종주의(多人種主義)를 국가적으로 수용하는 미국의 경우라고 하겠는데,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건국 초기에 그토록 강력한 종교적 신념으로 세워진 국가이면서도, 미국은 오늘날 더 이상 기독교를 유일한 국가적 이념이나 종교로 표방하고 있지 않다. '기독교 종교'를 각 개인이 그 양심에 있어서 자유롭게 신앙하고자 세워진 국가가 바로 그 개인의 양심이 종교적 진리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적 사고로 전환되었을 때에 나온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을 비롯하여 기독교를 표방하던 국가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대로, 종교적 진리가 성경 중심의 명제적 진리를 떠나 개인의 양심에 기초한다는 미명아래 인본주의적 사고가 자리잡을 때에는 타종교에 대해서는 그 국가들이 그렇게도 관용하지만, 실상 오늘날 미국을 여러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슬람 종교를 표방하거나 이슬람 신도들을 많이 가진 사회에서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⁴⁾

오늘날 논의되는 다원주의를 향한 의도의 이면(裏面)에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오던 기독교적 교리체계와 서방사회의 합리적 사고가 맞게된 한계(限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서구인들의 변화로 인한 서양과 동양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기도 하다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서구사회가 대변하여 왔던 분석(分析)과 논리(論理)의 과학주의(科學主義)적 사고의 한계 앞에서 심미(審美)와 전체적 통일(全體的 統一)을 주장하는 동양적 사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예를 들자면, 그토록 강력한 기독교 복음에 기초를 둔 미국 사회가 현대에 들어와서, 이민정책을 통한 다문화주의, 다인종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에 대해서는 사무엘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이 분석하는 바를 참고로 하라: 지난 수백년동안 지켜왔던 진리관 내지 가치관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다인종주의(multi-ethnicism)에 파묻혀 미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라: 참고; 포스트모던 시대 속의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 pp. 213-216:

4) Ibid. p. 215.

2. 서양적 논리의 한계와 동양적 통합의 일원론적 사고

종교 다원주의가 강하게 대두된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 사상을 지배해 왔다고 할만한 서방세계가 지닌 사회현상과 사상의 와해,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아래 전개되어왔던 학문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합리성에 기초한 과학주의(scientism)가 만들어 낸 명제와, 논리와 분석과 종합을 통한 사물과 인간과 우주에 대한 접근이 만들어 낸 서구적 한계는 이미 서구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기독교적 합리성'에 대한 불신을 싹트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깊은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진리관이 반드시 서구의 합리성을 정당화해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성은 서구의 지나친 합리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부터 일기 시작한 이신론(理神論)에 기초한 기독교적 사고는 그 이후에 전개되는 다양한 사고들, 예컨대 비합리성 내지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이어지는 종교관, 그리고 유일한 진리관으로서의 과학주의적 사고가 단지 패러다임(paradigm)의 다양성으로 인한 상대주의적 사고 등으로 이해됨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서양의 사상은 흔들거리게 되었다.

특히 플라톤(Platon)과 칸트(Kant), 그리고 헤겔(Hegel)로 이어지는 서구사상의 중심적 축(물론 이들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기독교 사고와 관련하여 볼 때, 이들이 남긴 이원론적인 사고는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은 일원론적 사고를 지향하는 동양적 사고와는 구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양의 형이상학과 과학주의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남긴 하나의 숙제가 있다면 서양의 이원론적 사고가 가르쳐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우주,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을 절대자의 이름아래 포괄함으로써 일체(一切)를 일여(一如)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날 많은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겠다.⁵⁾

따라서 현대적 사고에 둘러싸인 전통 기독교적 가르침은 더 이상의 보편적 진리로서의 우주적 관점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상대주의적 과학관에 입각하여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생태학적 논의와 같은 시급한 중요성을 논하는 흐름 앞에서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해석을 유도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支配)하는 흐름이 약화되었고, 단 하나의 진리를 배타적(排他的)으로 주장하는 모습이 설자리를

5) 이러한 측면의 강조는 오늘날 신학적 논의 중에서도, 과정신학자들(Process theologians)과 신정통주의자(新正統主義者)들 중의 일부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않게 되는 위기를 맞게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다만 모든 다양한 종교적 체험들이 다차원적 진리관으로 자리하게 되는 모습을 이루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화나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는 배타주의적 사고는 편협한 삶의 방식이거나 제국주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정치적 평등성이나 문화적 이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종교적 진리관을 잠식한다는 점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신학적 입장으로 전환되어 신학적 경향까지 압도해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종교적 진리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기독교 진리관의 유일성(唯一性)을 주장한다거나 성경적 신앙을 고수한다는 것에 대하여 '배타적 진리관'이니 '편협한 사고'이니하는 말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과의 대화와 소통(疏通)을 향한 상호이해와 이에 근거하여 다원주의적 진리관의 수용에는 이러한 흐름이 기독교적 사고아래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서구사상의 자유주의적 사고 내지 서구의 신학적 자유주의자들(theological liberalists)의 사고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이 보편화되어 가는 시대에서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이나 배타적 진리관이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매도당하는 모습을 보게된다는 것은 여간 슬픈 일이 아니다.

Ⅱ. "다원화된 사회"안에서의 "종교다원주의"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말들 중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관용(寬容)과 '화해', 그리고 '협력(協力)등임을 말하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별히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에서부터 이념과 사상 등, 온갖 차별을 극복하여 하나로 향하는 '일치(一致)야말로 인류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임을 주장한다.⁶⁾ 이미 전술(前述)한 대로, 오늘날의 현대문명은 그야말로 '지구촌(global community)이라고 불리워질만할 정도로 상호이해와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통의 발달과 통신수단의 급격한 발전은 지역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온갖 이념이나 사상간의 이질적인 요소를 무너뜨리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차이점들과 이견들을 통

6)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다양한 종교들이 뒤섞여 있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이 현실에서는 두드러져 보인다. 예를 들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과 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각자의 종교에서의 나름대로의 '종교적 체험들'과 '가르침들' 속에서 진리관을 공유하면서 사회에 공통의 가치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들에서 그러하다.

하여 표출될 수 있는 충돌을 막고 문화와 사상간의 통일성(統一性)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은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1. 문화적 다양성인가? 종교적 진리의 다양성인가?

특별히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성(多樣性)을 전제로 하면서도, 각 문화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대화는 단순한 문화적인 관점을 넘어서 종교간의 이해와 대화(對話)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이렇게 함으로서 어떤 하나의 종교(宗教)나 그 신념(信念)의 체계가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신념의 체계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공격하는 정복주의적 태도를 지양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톨리히(Tillich)의 사상을 따라 김정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역사 이래 최초로 문화, 종교, 전통의 다양성을 그 심층적 차원에서 만나 경험하면서 삶의 다원성을 긍정한다. 기독교 문화 형태와 기독교적 종교 상징 및 교의 체계가 유일무이한 절대적 규범을 지닌다거나 우월성을 지닌다는 독선적 배타주의는 설 자리가

7) 종교간의 대화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흔한 화제가 되고 있다. 비록 교조적인 논의가 주된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자선의 행위가 주된 것이라 해도, 종교간의 교류와 대화는 이미 각각의 종교들의 정체성을 희석시킬만큼 상당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언론(조선일보)에 보도된 다음의 내용은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 노트] 원불교 원음방송 "메리 크리스마스"
[사회, 연예오락] 2001년 12월 23일 (일) 18:35

'아기 예수 탄생! 함께 축하해요.'

제목만 보자면 기독교 방송의 성탄 특집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걸 원불교 방송인 원음방송(서울 89.7MHz, 부산 104.9MHz, 전북 97.9MHz)이 성탄을 맞아 기획한 특집 프로그램이다. 24~25일 이틀간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된다. 특정 종교 방송이 다른 종교의 축제일에 특집 방송을 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전례를 찾기 어렵다. 시절에 맞춰 축하 메시지 정도 내보내는 거라면 모를까 기획 자체를 종교간 화합에다 맞춘 것은 신선하다.

종교 종합전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교가 함께 존재하는 나라에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선 굵고 담 쌓기 바빴던 과거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저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흥미롭다. 내용을 보자면 정말 원음방송의 프로그램이 맞나 싶을 만큼 파격적이다. 원불교 장웅철 교정원장,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스님 등의 성탄 축하 인사를 방송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동완 목사의 감사 인사까지 준비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기독교계의 봉사 현장을 찾아가는가 하면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를 초대해 성탄절의 의미까지 들려준다.

송지는 PD는 "기독교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종교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원음방송 애청자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1998년 익산 원음방송이 개국 때부터 종교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성탄 특집은 그간의 지속적인 종교화합 노력이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타종교가 아니라 이웃종교입니다'라는 원음방송의 목소리가 성탄을 맞아 더욱 낭랑하다.

없게 된다...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배타적이고도 절대적인 신앙 고백적 표현들에 대하여 역사 비평적 연구방법만이 아니라 해석학적 조명을 가함으로서 문자적 성경 권위주의의 속박과 그 질곡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타종교 예배 양식이나 종교상징체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일어나는 우상숭배 논쟁 등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요소이다.⁸⁾

문화나 종교적 이해에 대한 다양성을 전제로 하면서 상호이해와 협력으로서 상생(相生)의 원리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 직면하여, 과연 성경적 진리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만 하며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 것인가?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유일한 진리로서의 성경적 진리관을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들로서,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전수해야 할 책임을 가진 오늘의 기독교회는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흐름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진리성'(unique truthfulness)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실에서 먼저 이해가 요구되는 것은 진리를 다루는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多元主義)와 문화적 차이점들을 보여주는 다양성에 기초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多文化主義)는 구분되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다양성을 기초로 한 진리에의 통합주의(ecumenism)를 주장하거나, 또는 진리에의 체계 내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종교적 진리의 일치를 주장하는 종교적 다원주의는 다원화된 사회 구조 안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전통들과 차별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다문화주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다원주의'가 진리에의 통합 내지 종교적 경험들의 상호이해를 통한 상생의 진리관을 피력하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삶의 전통들을 존중함으로써 오히려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들로부터 구별되어 독특한 형태를 이루어나가도록 시도하는 것이 다문화주의가 드러내는 의도라 할 것이다. 물론, 비록 다문화주의에서도 자신들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와 자신들의 전통만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극단의 투쟁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다문화주의에서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⁹⁾

8) 김경재,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다산 글방, 1992) pp. 80-82

9) 물론, 티리히(P. Tillich)와 같은 사상가들은 문화 현상들과 종교적 진리관이 상호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모든 문화적 현상들이 내재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그 기저(基底)와 근본에 있어서는 온갖 다양한 종교적 진리들을 상징화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2.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에서 이해되는 진리관

종교다원주의는 문화적이며 예술적 차원의 다양성의 기초아래 벌어지는 현대적 흐름에 뜻을 합하여 진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 스스로 규정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현대적 접근에 있어서 인간성에 대한 계몽주의적 자율성(自律性)을 전제로 한 세속적 인본주의(secular humanism)를 내세운다. 세속적 인본주의에서는 계몽주의적 사고를 지배했던 이성중심의 활동을 통한 진리관이나 우주적 진리관(universal truth)이 거부되고 개인의 특수한 진리관이나 느낌(감성)을 우선시하는 개체주의(particularism)나 각각의 존재와 모습을 중시함으로 거대담론을 거부하는 경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어떤 통일성있는 진리관보다는 각각의 문화나 개인, 집단에 따라 각각의 진리관을 받아들이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수용하게 됨으로서, 인간이성 중심의 계몽주의적 사고는 신적 진리로서의 우주적 진리를 포기하게 된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단순한 하나의 이론(理論)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세계관(世界觀)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세계관으로서의 세속적 인본주의는 사람들에게 곧 신앙의 관점으로 파고든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는 프로이트(Freud)의 심리학파와 듀이(Dewey)의 교육에서와 쿤(Kuhn)을 중심으로 한 상대주의적인 과학관 등 학문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또한 공산이념과 나찌주의 등과 같은 정치, 사회 분야에서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는 유전공학(遺傳工學) 등에까지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일체의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지 '인간의 자기 실현'(自己實現)의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정치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는 소위 공산(共産)을 전제로 한 동등한 사회 구조를 통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도(企圖)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것은 이러한 전개과정에서 그 이론의 토대가 제공된 것은 신학적 자유주의 내지 신학적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이다.¹⁰⁾

결국 세속적 인본주의는 다원주의적 진리관을 왜곡된 기독교 신학사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이 되었으며 그 진리관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원론적 진술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으므로 단일한 신앙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유일한 명제적 진리요 동시에 초월적 진리관으로서 사회를 인도해왔던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배타적이며 유일한 진리관으로서의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유일성의 명제적 진리관을 내세우는 기독교는 세속적 인본주의 내지

10) 예를 들면, 이러한 이론의 근본을 이루게 된 것은 헤겔(Hegel) 사후에 전개된 일종의 유물주의적 사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마스(Marx)와 포이에르바하(Feuerbach)라고 할 수 있다.

다원적 진리관을 내세우는 상대주의적 사고 앞에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상반된 진리관이 실상은 기독교 신앙의 이름아래 그 변질을 주도해 왔다는 점이다. 2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고는 다변화되는 사회와 혼합주의적 사고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Ⅲ. 다원주의적 사고에 대한 진단

1. 정치, 문화적 '동등성'인가? 종교간의 '대화'인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문화적 동등성 및 다양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즉, 현대의 자유사상가들에 따르면, 한 사회가 만들어 내는 '문화'라든지, 또는 개개인이 갖는 '경험'이란 보편적인(universal)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서구사회의 기독교 문화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기독교 신앙과 서구의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요, 기독교 신앙은 서구문화의 근본이요, 또한 서구문화 역시 기독교 신앙의 열매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다른 종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기반에 선 서구의 문화로 동양이나 타지역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종교의 탄생과 그 흐름을 문화적 관계에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온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평등성과 함께 모든 문화에 대한 평등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숨은 의지가 있다.

물론, 종교적 신앙이나 신념체계는 사회와 개인의 삶의 양식을 지배하거나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을 문화적 관계나 삶의 양식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는 잘못이다. 거기에서는 희랍신화나 동양의 유교사상이나 도교사상 등은 기독교 사상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당연히 서구와는 상이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종교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차원의 이해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언급되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은, 종교간의 대화(對話)로서 즉, 상호이해 내지 평화적 상존(常存)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종교다원주의는 실상 그 밑바닥에는 종교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 내지 평화적 상존(相存)을 꿈꾸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다양한 종교라 할지라도 상호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에는 진리란 '이것인가? 저것인가?'(either-or)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기에도, 저기에도'(both -and) 종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으므로 상호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모든 종교들은 결국 동일한 실재들을 다루는 격이 되므로,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는 진리를 보충하며 풍성하게 만드는데 유익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대화(對話)라는 언어라든지, 대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기독교인을 향한 복음전도 역시 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종교간의 대화(inter-religious dialogue)란, 먼저 '상호이해'와 '진리에의 보충', 그리고 '상호대화(dialogue)를 통하여 '각자의 진리관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즉,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대화(dialogue)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히 여기며(respect),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지식의 축적개념(cumulative perception), 진리에의 접근(approach to the truth), 그리고 보충적 진리관(enriched truth)을 만들어 내거나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단 하나의 사고구조 내지 종교적 진리관으로는 전체를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적 사고(자유주의 신학)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과연 이슬람이나 불교, 또는 도교에서 이러한 종교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지를 살펴 보라. 특히 회교(이슬람)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사고와는 멀 뿐만 아니라 가장 호전적인 종교임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유대교인과 기독교인과의 대화를 상정해 보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가 가능한가? 대화란 '공통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차이점'의 확인이 아니겠는가?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결국 '어떤 관점에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2. 보편이념과 보편진리로서의 '하나님'인가? 계시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인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기독교 신앙을 언급함에 있어서, 성경에 진술된 신적 진리는 모든 종교들 속에 들어있다고 여겨지는 보편이념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유일한 계시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인가? 하는 점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 그 하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어떤 특정한 교리나 문화, 또는 종교적 신념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양한 형태이긴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지 '성경'이라는 체계에만 머물지 않고, 또한 특별한 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다양한 종교들을 연구하거나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폭넓게 수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동시에 구속주(救贖主)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해에 근거한다. 비록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창조자 하나님은 동시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 교사요, 훌륭한 윤리주의자요, 심지어는 신비한 종교인이기는 하나,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요 인간이시다'라는 진술은 진부한 것임을 주장한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동시에 구속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를 수반한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기는 하나, 곧 이은 인간의 타락(墮落)과 그 타락의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증거하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사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고후 5:17)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또한 강조한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 복음(Christian Gospel)이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三位一體的) 이해에 이끄는 길이 된다. 만일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은 인정될 망정, 구속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얻지 못한다. 1960년대의 Harvard 대학의 교수로 있던 Harvey Cox는 급진적인 자유주의적인 사고아래, 기독교 신앙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 별 관심을 쓰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르러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기독교에서는 가장 특수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¹¹⁾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다른 점은,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죄를 인정하여 구속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기독교 신앙이나 다른 종교들이 인간의 개선(改善)과 발전을 통하여 더 나은 인간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공통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인간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구속의 은총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종교와는 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救援)의 의미에 교훈의 핵심을 둔다. 그 구원이란 불교의 경우와 같이 인간의 '마음'(心)에 두는 것이 아니다. 유교의 경우와 같이 수덕치인(修德治人)에 두는 것이 아니다. 도교의 경우와 같이 자연스러움(自然)이나 천인(天人) 합일에 두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에 그 교훈의 핵심을 둔다.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교훈에 자신들의 강조점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창조자'에만 강조점을 두면서, 모든 종교들 속에 들어있는 절대자(絕對者) 내지 초월자, 또는 신(神)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도덕과

11) Harvey Cox, Many Mansions (Boston, M.A.: Beacon, 1988), pp. 5-6.

윤리, 선을 향한 가르침을 주장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시대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때, 그 각각의 종교들 속에 나타난 절대자의 계시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현대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죄(罪)의 개념에 대한 약화를 들 수 있다. 실상, 인간의 타락과 이로 인한 죄의 오염의 결과는 기독교 신학사상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은총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근간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신학적 자유주의 내지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에 대한 성경적 비평이 나오게 된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측면은 현대사상의 흐름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향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인간의 죄성(罪性)에 대한 약화 내지 무시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심판에 대하여 언급을 외면하는 의도를 보이게 된다.

IV. 결론: 다원주의 시대 속의 성경적 신앙인의 과제

오늘의 기독교 신앙이 다원주의적(多元主義的) 흐름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은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라는 삶의 문제에서만뿐만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타종교들과 조우(遭遇)하게 되는 기독교 신앙이 당면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리고 좀 더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다원주의적 사고는 반드시 현대적 흐름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본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적 흐름과 그 사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그 많은 시대와 수많은 상황에서도 늘 존재해 왔었음을 보게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당면했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 역시, 복음과는 거리가 먼 유대교의 흐름이 주변에 있었으며, 또한 이방종교로서의 다신교(多神敎)를 주장하는 로마시대의 종교들이 있었고, 기독교는 이러한 타종교들과 상당한 갈등을 일으켰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고린도와 에베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이 세워진 바로 그곳들에서는 헬라철학과 이방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울의 복음전도와 더불어 기독교 복음의 유일한 진리성을 증거하는 많은 변증가(辨證家)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변증가들은 비록 당시의 철학과 사상들을 활용하기는 했을지언정, 결코 그 당시의 사상에 흡입되어 기독교 신앙의 왜곡을 불러오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세심하게 살펴볼 때, 역사적 기독교 신앙은 그 기나긴 흐름 속에서 성경중심의 굳건한 신앙으로 인하여 다원주의 사상과 항상 대립하여 왔음을 보게 된다.

1. 기독교 신앙에 대한 통일성의 요구

오늘의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고 보는 것과 '문화혁명의 시대'로 보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historical christian faith)은 신앙의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영성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명제적 진리(propositional truth)를 거부당하여 빛나간 신비주의(神秘主義)를 향한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지닌 성경중심의 합리적 사고는 소위 실존주의적 사고의 비논리(非論理)와 감정성(感情性) 앞에서 상당한 긴장을 강요당하고 있다.¹²⁾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문화 혁명의 시대' 속에서 변질된 '낭만주의적 사고'와 더불어 '성적 도취'를 부추기는 '마약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흐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과 변혁의 와중에서 신학적 세계 역시 그 내용과 사고의 방향에서 상당한 변화를 요구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 신앙의 '초월성'을 가장한 '초월적 신비주의'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내재성'을 가장한 윤리주의적 사고가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간직해야 할 진정한 전능자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초월성이 초월적 신비주의로 전락하고 있으며, 인간과 함께 하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의 손길이 신자의 기도를 통해 이해되어야 할 하나님의 내재성이 '모든 인간은 신이다'라는 뉴에이지 사상 등의 힘을 입어 전통 기독교 신앙은 상당한 왜곡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현대의 신학사상 역시 이러한 흐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수많은 공동의 관심을 나누도록 요구받는다. 20세기 초반에는 빛나간 정치체제로 인한 반독재를 향한 연대체제를 비롯하여 20세기 후반을 거쳐오면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된 생태계의 문제들까지, 실로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외부와의 관계 정립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기독교 신앙인은 다음의 몇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그는 인간을 비롯한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요, 그 분안에서는 지식이나 일체의 인간의 행위가 통일성(統一性)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이

12) 그 대표적인 경우가 카뮈(Camus)나 사르트르(Sartre)의 경우라고 하겠다. 이들은 비록 세계 속에서 도덕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유신론적 합리주의를 부정하면서 절망(絶望)과 우연(偶然)이라는 필연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통일성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사회, 사회와 이 우주 등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합리적 관계가 있으며, 이 합리성은 성경의 주어진 명제적 진리 속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가진 진리의 부정성 내지 진리의 파편성을 거부해야 할 이유를 갖는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 진리를 떠난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율성(自律性)이라는 것이 결국은 파괴적일 뿐임을 믿는다. 따라서 계몽주의적 사고 안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 현대적 사고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는 점이고, 포스트모던의 그 어떤 형태 역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기독교적 안목으로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2.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말에 대한 경계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진리를 향한 '규범성(規範性)'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성의 약화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볼 때, 그 근본의 문제는 교리적 배도(敎理的背道)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 점증하는 진리관에 관한 질문은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인가?'에 있지 않고 이제는 '당신은 무엇이 진리라고 느끼는가?'에 있을 뿐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의 진리에 대한 규범은 종래의 '진리의 객관성'이나 '보편성'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나친 개인의 의식 내지 '느낌'에 두려는 태도가 기독교 신앙의 진리관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은 진리의 근거로서 어떤 권위에 두지 않고 단지 모든 것을 인간의 권위에 두려는 또 다른 인간의 자율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anthropos metron panton)라는 전형(典型)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중심의 '자율(自律)과 인간 스스로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혼돈과 절망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배워왔다. 포스트모던 시대성이 갈구하는 문화에 대한 욕망과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방임적인 모습이 때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현대를 혼돈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교차하며, 이로 인한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이 팽배해져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은 절대적 진리관을 거부하는 현대인의 습관과 사회적 흐름일 뿐, 진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리에 대한 분명한 사고를 거부하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불일치(不一致)를 조장함으로써 다원주의적 사고의 정당성을 부정하고자 할 뿐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은 자유(自由)의 이름아래, '뭐든지 허용'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면서, 인간의 자유성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관용과 포

용을 부르짖으면서도 또한 그 속에서 진리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성만을 극대화 시켜나아가려는 현실을 올바르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시대정신이 '현실중심'의, 그리고 '오직 인간의 사고'만을 극대화하려는 인본주의적 사고의 증대 앞에서 기독교 신앙은 신적인 권위를 드높이며,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 규범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직면한 기독교는 그 모든 진리의 기준과 행위의 원리를 성경의 교훈에게로 돌려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도의 교훈에게로 눈을 돌려야 할 시급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비록 오늘의 시대가 '대화'(對話)와 '관용'(寬容)을 미덕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인 것은 틀림없으나, 대화나 관용이 인간성만을 드높이거나 불신앙(不信仰)과 비진리(非眞理) 내지 죄악에 대하여 눈감는다거나 타협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 정신에 직면하여 기독교 지성은 성경의 교훈에게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오늘의 시대의 징조를 알리며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인식하면서, 오늘의 시대가 영적 배도(spiritual apostasy)의 시대임을 이미 예견하면서 신자들을 경계하는 성경의 교훈에게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나간 인본주의(人本主義)와 그 사상이 인류의 지성사(知性史)에 남긴 역사적 결말을 교훈으로 삼고 경계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절대적 진리성을 떠난 인간중심의 상대주의적 진리관이 남긴 부분적이며 한시적인, 그리고 종극적으로는 허무주의적이며 파괴적 실상으로 인해 인류가 얼마나 오류를 헤매었는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런고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중심의 가르침(교리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에 찬 공동체성(共同體性)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더불어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